

원기78년도 연구발표

법회식순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1993. 03. 22

1. 연구제목 : 법회식순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2. 연구목적 : 교단 초기 자료와 교고총간, 그리고 그 동안 발행된 예전을 중심으로 법회에 관련된 내용과 식순을 찾아보고 오늘날 법회식순을 진단하면서 좀 더 성숙한 법회식순으로 이끌기 위해서.
3. 연구사항 : 1) 예회가 법회로 바뀌면서 성격변화.
2) 법회일자 변천과정
3) 법회식순 변천과정
4. 연구결과 : 예회라는 우리 고유용어가 법회란 개념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법회일자를 다양하게 예전에 제시를 했음에도 우리들이 이를 십분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야회도 예회를 보는 각 교당에서는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법회식순에서는 초기부터 대대로 내려온 경강이 오늘날 법회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주지 못함을 파악했으며 교도들의 공부를 진작시키는 법의문답과 감상담 발표시간도 식순에서 제외되어 전통을 살리지 못한 식순임을 파악했다.
5. 연구기간 : 원기 78년 3월 10일 ~ 3월 22일, 9월 7일 ~ 10일
6. 연구자 : 정천경

법회 식순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1. 서론

원불교 교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식이 법회다. 그런 만큼 법회는 원불교 신앙의식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제일 소중하게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교도들한테 무한한 감명과 거룩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회에 참여한 교도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평온과 육신의 편안을 느끼고 돌아갈 때는 뭔가 소득을 얻어서 마음의 희열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의 목적을 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아래, 그 동안 우리 교단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법회라는 개념을 알아보고 교단 초창기 때부터 불린 예회라는 개념이 오늘날 법회라는 개념으로 불리면서 그 성격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또한, 법회 날짜의 변천과정과 법회식순 변천과정을 그 동안 교단에서 나온 예회에 관련된 초기 자료와 예회식순이 실린 교고총간, 그리고 원기 37년에 발행한 프린트 임시판 예전과 현행 예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법회를 과거 전통을 살리면서 더욱 더 성숙된 법회로 만들어 보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 법회란?

법회는 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하는 것이니 법회에는 정례법회와 수시법회가 있으며 정례법회에는 월례법회와 연례법회가 있고 월례법회에는 예회와 야회가 있고 연례법회에는 동선 하선과 특별강습회가 있으며 수시법회는 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이니 그 회기 중에는 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을 쉬고 오직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모든 절차에 법의 감명을 받으며 법으로써 행사하자는 것이니라.

- 예전 제3편 교례편 제3장 법회 -

3. 예회와 법회의 개념과 그 성격

초창기에는 법회라 하지 않고 예회라 했다. 이 때 예회는 “월례회”의 줄인 말로써 오늘날 말하는 법회 성격이라기보다는 회의와 집회의 한가지로써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창12년 3월에 발행된 불법연구회 규약 제3장 12조를 보면 “회의는 좌의 4종(정기총회, 임시총회, 평위원회, 월례회)으로 정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고 했으

며 시창 19년 5월 14일에 발행된 불법연구회 규약 제5장 17조에서도 “회의는 3종(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으로 정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있어 월례회가 회의의 일종¹⁾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시창 28년 12월 9일에 발행된 근행버블 보면 “집회는 월례회, 단회, 총대회, 본지부연합회 등이 유함”이라 하여 회의 성격을 벗어나 집회 성격을 띄면서 일반회원을 훈련하는 훈련성격까지 띄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때 근행법에서 예회 성격을 규명해 놓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월례회는 교리와 제도를 일반회원에게 훈련하기 위하여 본부급 지방도장에서 월 3, 6일을 정례로 설교가 유함.”

이와 같이 예회가 회의와 집회의 개념으로 자리를 해오다가 원기 37년에 나온 프린트 임시판 예전에서 제3편 교회의례에 월례회가 정례법회에 포함되면서부터 오늘날의 법회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프린트 임시판 예전에 의하면 “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어떤 회합이든지 신앙중심으로 진행하는 회합을 통칭함이니, 그 회기 내에는 세간의 모든 攀緣을 끊고 오직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으로 參詣하여 모든 절차에 법의 감명을 받으며 법의 실력을 얻으며 법으로써 행사하자는 것이 법회의 근본 의지다.”고 법회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회에는 정례법회와 수시법회가 있는데 정례법회는 월례회와 연례회가 있다. 월례회는 매월 중 모든 교도의 수행을 대조하고 지견을 연마하게 하는 법회로써”라고 하고 있다. 이 법회의 요지가 원기 52년에 발간한 오늘날 예전에 수록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다. 다만 다른 것은 오늘날 예전에는 월례회와 연례회라 하지 않고 월례법회와 연례법회라고 한 점이다.

이로써 예회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법회라는 개념이 일반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법회라는 개념보다는 예회라고 하는 것이 기존불교에서 행하고 있는 법회라는 개념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다.

예회 성격도 살펴보면 처음에는 회의와 집회로써 성격을 뛰다가 원기 28년에는 교리와 제도를 훈련시키는 성격을 띤다. 그러다가 원기 37년 임시프린트판 새 예전이 나오면서 법을 강론하고 훈련하는 성격과 함께 신앙성도 강조가 됨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수행을 대조하고 지견을 연마하는 법회라하여 신앙적인 면보다는 수행적인 면에 더 강조를 하고 있다.

4. 법회(예회)일자 변천과정

1) 삼순일 예회(매달 열흘마다 예회를 봄)²⁾-최초 (원기2년) 예회일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원년 겨울에 여덟 제자를 뽑고 10인 1단 조직법을 구상하며 그 이듬해 9월 12일(음 7월 26일) 장차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통치 교화할 단 조직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나서 종종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단원들의 마음을 결속시키고 친히 지도할 말씀도 천재말씀이라 해서 그 실행을 권면하면서 매달 열흘

1) 그렇다고 예회가 안건을 의결하는 성격을 가진 회의는 아님을 뒤에 나오는 그 식순을 보면 가히 알 수 있다.

2) 통신강좌 교사7권2, 개벽의 상두소리 8쪽

마다 보는 예회 법을 우선 실시하시고 성계명시독을 기록케 하여 신성과 행실을 반조케 했다고 통신강좌 교사편에서 밝히고 있다.

2) 매월 3. 6일³⁾ 원기 12년

불법 연구회 규약을 보면 “월례회는 매월 3. 6일로 개최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때는 삼순일 예회라는 날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3. 6일이라는 날짜로 지정을 해서 6일, 16일, 26일날 예회를 본 것 같다. 이 때 3. 6일은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으나 그 당시 거의 음력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음력일 가능성이 높다.

3) 3. 6일과 일요일⁴⁾-원기19년

회보 9호를 보면 “5월 27일부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총본부에서는 일요일에 예회를 보기로 함”이라 되어 있고 시창19년 5월 14일에 발행한 불법연구회 규약에서도 “월례회는 3. 6일로 개최함. 단, 都會地교당에 한해서는 종법사의 인가를 득한 후 월례회를 매월 일요일로 개최함을 득함”이라 되어 있어 이때부터 일요일예회가 실시됐고 처음 실시한 곳은 총본부임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주로 3. 6일 예회가 보편화 된 상태며 일요일예회는 특수한 교당에 한해서만 인정된 시기다.

4) 3. 6일이나 일요일⁵⁾-원기 37년

원기 37년에 나온 예전을 보면 “그 지방교도의 형편에 따라 3. 6일이나 일요일간에 정의한 일자를 택해 쓰게 하는 바 3. 6일 예회를 보는 지방에서는 수요일 야회를 보게 하며 혹 신설지부에서는 출장예회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교회 책임자가 적당한 날짜를 정하여 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 이때는 지방교도 형편을 봐서 3. 6일이나 일요일로 날짜를 적당히 잡아서 예회를 봤으며 3. 6일 예회 보는 지방에서는 수요일 야회도 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때부터 일요일예회가 종법사 인가사항이 아님을 볼 수 있고 또한, 야회가 처음으로 3. 6일 예회를 보는 지방에서는 수요일 날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일요일예회가 더욱 더 3. 6일 예회보다도 보편화됨을 볼 수 있었다.

5) 일요일이나 3. 6일, 적당한 일자⁶⁾-원기 52년부터 오늘날까지

“그 지방 일반교도의 생활 형편에 따라 일요일이나 3. 6일 또는 적당한 일자를 택하여 개최하되, 일요일예회에는 수요일 야회를 3. 6일 예회에는 3. 1야회를 개최하며 혹 신설지소나 선교소에 출장예회를 보는 경우에는 그 지방 교회책임자가 적당한 일자를 정하여 행할 것이요”라고 이 당시 처음 발행된 예전에 나와 있다.

이때부터 일요일예회가 정착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야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전에 제시를 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예회는 거의 모든 교당들이 일요일예회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야회는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한 형편⁷⁾임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이다.

3) 불법연구회규약(제3장12조), 시창12년 3월 발행.

4) 회보9호 (시창19년 4, 5월호), 시창 19년 5월 14일에 발행한 불법연구회 규약에서도 “월례회는 3. 6일로 개최함. 단, 都會地 교당에 한해서는 종법사의 인가를 득한 후 월례회를 매월 일요일로 개최함을 득함.

5) 시창 37년 프린트 임시판 예전.

6) 예전. 성가, 1968. 3. 26일 발행 원불교 정화사 편찬, 원불교 교무부 발행.

이상과 같이 예회 일자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다시 정리를 하면 초기에는 삼순일 예회로 매월 3, 6일에 보다가 원기 19년부터는 일요일 예회가 도회지 교당을 중심으로 종법사 인가를 받아 보게 되고 원기 37년부터서는 일요일 예회가 종법사 인가 사항이 아닌 각 교당 형편사항이 되어 일반화되고 또한 일요일예회가 보편화 되었고 수요일예회까지 보도록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3, 6일 예회와 일요일예회가 같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원기 52년 이후부터서는 많은 교당들이 일요일에 예회날짜를 맞추어 법회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 법회식순 변천과정

1) 개회-출석원점검-심경독창-3인講道-(先生主 법설 또는 보설)-폐회

시창 13년 음4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위 식순으로 진행하다가 음 7월 26일부터 음 9월 16일까지 심경독창 다음에 선정된 단규⁸⁾와 세칙을 낭독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음11월부터 매달16일에는 오전 오후를 단회일로 잡아 실시해 시창 15년 6월 이전까지 진행됐다.

매월 16일 단회 일에 진행된 식순은 : 개회 - 출석원점검 - 심경독창 - 단원 성적 조사 방법설명 - 본회창립요론 - 단금수입 - 의견심의 - 단원성적조사 - 폐회⁹⁾이다.

2) 개회 - 출석원 점검 - 법어낭독 - (선서문 낭독) 유래서 1편 낭독 - 질의문답 - (종사주 보설) - 춤이나 노래 - 폐회

시창 15년 6월 26일부터 예회식이 개정¹⁰⁾되어 시창 17년 4월 6일 이전까지 진행. 질의(법의)문답이 이때부터 예회식순에 들어감을 볼 수 있고 선서문 낭독도 이때부터 매월 첫 법회 때 들어감을 볼 수 있다. 법의 문답이 예회 식순에 들어간 유래를 원불교 사전에서는 대중사가 한 때 부산지방에 가서 예회시간에 교도들과 교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더니 교도들이 잘 이해하게 되어 그 이후부터 예회시간에 법의 문답을 넣게 되었다 한다.¹¹⁾

3) 개회 - 출석원 점검 - 심고 - 예회가 - 법어봉독 - 육대요령 경의문답 (종사주 법설) - (선서문 낭독) - 감각감상 처리담 - 폐회

시창 17년 음4월 6일부터 시창 19년 음 4월 15일 이전까지 진행. 이 때 식순을 보면 심고와 예회가가 정식 식순에 들어감을 볼 수 있다. 심고는 월말통신35호¹²⁾

7) 교화부에 매달 보내는 교화상황 보고서 1, 2월분 살펴보면 1월에는 35개 교당, 2월에는 33개 교당이 야회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끊이지 않고 야회를 본 교당을 보면 27개 교당으로 대략 현재 야회를 보고 있는 교당은 실지로 정례법회를 보고 있는 전체 40개 교당 중 30개 정도 교당으로 보면 적당하다고 보겠다. 이 야회는 예전에 밝혀준 식순대로 밝아 행한 교당과 전서봉독이나 선 법회, 기도, 고경들을 하고 있는 교당으로 나누어 있다.

8) 월말통신 8호 “선정된 단규규칙에 의하면 매월 16일은 단회 일로써 오전 오후를 모든 단회를 보기로 함.”

9) 월말통신 9호, 음 11월 16일 단회식순

10) 월말통신 28, 9호, 시창15년 6월호, “6월 26일은 본회 창간 제2회 내 제79차 월례회 일로써 전음과 씨 사회로 개회하고 예회식 개정에 준하여 주간하 질의 문답을 개시하오니”

11) 원불교사전 195쪽

12) 시창 17년 4월호

4월 6일 예회록을 보면 “사회로부터 심고에 대한 취지와 방식을 설명한 후 종사주 하명에 의하여 자차로는 본회, 본지부를 물론하고 심고를 일종의 예시순서로 삽입 할 것을 선포한다.”고 나와 있어 이때부터 실시된 것 같고 예회기도 정확한 실시 년대는 파악이 안 되나 아마 이 당시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회기는 불법연구 회기이다. 감상담은 그 이전부터 간간히 식순에 나오기도 했다.

4) 매 예회 식순

#. 첫째예회 : 개회 - 출석원점검 - 회가 - 심고 - 법어봉독 - 3인 강연 (회보소개) - (종사주 법설) - 선서문 낭독 - 폐회

#. 둘째예회 : 개회 - 출석원점검 - 회가 - 심고 - 법어봉독 - 2.3인 강연(회복소개) - (종사주 법설) - 휴회 - 속회 - 각 단원 일기성적조사 - 폐회

#. 셋째예회 : 개회 - 출석원점검 - 회가 - 심고 - 법어봉독 - 2.3인 강연(회보소개) - 종사주 법설) - 휴회 - 속회 - 각 단원 일기성적조사 - 폐회

#. 넷째예회 : 개회 - 출석원점검 - 회가 - 심고 - 법어봉독 - 2.3인 강연(회보소개) - 폐회

#. 다섯째예회 : 개회 - 출석원점검 - 회가 - 심고 - 법어봉독 - 2.3인 강연(종사주 법설, 경의강론, 감상담) - 불미보고¹³⁾ - 폐회

#. 마지막예회 : 개회 - 출석원점검 - 회가 - 심고 - 법어봉독 - 법의문답- 폐회
회보9호(시창 19년 4,5월호) 광고란에 예회일 변경이란 제목으로 “총본부에서는 음력 4월 초 6일로 예회를 보고 5월 27일 (음4월 15일)부터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일요일에 예회를 보기로 한 바 첫째 일요일에는 오전만 보기로 하고(선서문 낭독도 함께함)둘째 일요일에는 단원회로 정하여 오전 오후를 다 보기로 하고 셋째 일요일은 오전은 예회, 오후에는 각단장이 단원의 일기성적조사를 하기로 하고 넷째 일요일에는 오전만 보기로 하마, 다섯째 예회에는 교무부에서 법설, 경의강론 혹은 강연, 감상담을 하여 각 회원에게 공부와 사업의 방향을 일러주고 끝에 일요일에는 회원 각자가 경전에서 모르는 곳이니 혹은 의심나는 일을 묻기로 하며 또는 공부한 것을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나와 있다.

위 예회식순은 원기 19년 5월 27일부터 원기 22년 5월 이전까지 진행된 듯하다. 이 때 나타난 특징은 교화단회가 예회 깊숙이 자리 잡아 강화됐다는 점과 음력 일요일예회를 총부에서도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불미보고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예회를 하루 종일 본점 등이다.

5) 개회 - 출석원 점검 - 회가 - 심고 - 법어봉독 - 회원수지강의, 문답(회보소개) - 강연 - 종사주 설법 - 광고 - 폐회

원기 22년 6월 16일 예회부터 시창 24년 1월 14일까지 진행됨. 선서문 낭독은 역시 매월 첫 예회 때 실시를 하고 불은미 보고는 둘째 예회나 첫째 예회 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광고시간에 간혹 입회인 인사나 경찰 신문 소개, 또한 회원수

13) 시창 13년 8월 16일 제안을 했으나 종사주 시봉금과 오해가 있어 보류를 해오다가 동년 11월 16일 예회 때 보류건으로 있던 이춘풍씨의 “불은미 저축안”을 사부주께서 임석한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하고 장려키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26일부터 불은미를 지참토록 약속했다.

지 강의 문답시간에 청년지도 훈련 강습에 대한 보고나 부산 다녀온 감상담도 이뤄졌음을 볼 수 있으며 원기 23년 7월 24일부터는 종사주가 직접 숙제를 내주고 해답을 감정하며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다.¹⁴⁾ 그리고 원기 22년 8월 8일 예회부터는 법어봉독 다음에 국가제창¹⁵⁾을 한 흔적이 보인다.

6) 개회 - 교강제송¹⁶⁾(일어서서) - 출석원 점검 - 회가 - 심고 - 법어봉독 - 국가제창 - 3~4인 강연(회보소개) - 광고 - 폐회

원기 24년 3월 22일 예회부터 실시했다. 원기 25년 7월 17일 예회부터는 강연을 1인으로 하고 각 조 경전 강의가 강연 전에 식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원기 25년 4월 28일 이후는 자료가 없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7) 원기37년 프린트 임시판 예전에 나온 법회 식순 : 개회 - 삼귀의 - 일상수행의 요법 - 출석보고 (서기가 미리 출석원을 조사하였다가 총수를 이 순서에 보고한다. 즉 형편에 따라 이 순서에 점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기타순서에 점명과 보고를 할 수도 있다.) - 교가 - 심고 - 법어봉독 - 법의문답 - 경강, 강연 - 기타 (첫 법회 선서문 낭독) - 사홍서원 - 산회가 - 폐식

8) 원기 52년도 예전 수정초고 자문판(원기 52년 2월 20일)에 나온 식순 : 개회 - 선정 - 삼귀의 - 교가 - 심고 - 법어봉독- 일상수행의 요법 - 법의문답 - 경강 및 성가 - 설교 - 기타(선서문) - 사홍서원 - 산회가 - 폐회

9) 원기52년도에 발행된 최종판 예전에 나온 식순 : 개회 - 입정 - 교가 - 심고 - 법어봉독 - 일상수행의 요법 - 경강 및 성가 - 설교 - 법의문답기타 (선서문) - 산회가 - 폐회

10) 108회 수위단회 결의에 따라 원기 71년 7월 1일 전국 각 교당에 변경된 법회 순 : 성가 - 불전헌배 - 개회(경종10타) - 입정 - 일원상 서원문 - 교가 또는 성가 - 설명 기도 및 심고가 - 법어봉독 (합독) - 성가 - 경강 또는 설교 - 성가 - 일상 수행의 요법- 목상심고 - 성가 - 폐회

11) 원기76년 1월 1일에 확정 시행된 현행 법회 식순 : 성가 - 개회(죽비3타) - 불전헌배 - 입정(경종10타 후) - 일원상 서원문 - 교가 - 설명기도 및 심고가 - 법어봉독(합독) - 성가 - 경강 또는 설교 - 일상수행의 요법 - 목상심고 - 성가 - 폐회(죽비3타)

이상과 같이 교고총간에 나오는 초창기 법회식순부터 그 이후에 편찬된 예전에 나와서, 오늘날까지 변천되어 진행된 식순들을 앞에서 살펴봤다.

이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 시창13년부터 15년까지는 식순이 개회 → 출석원 점검 → 심경독창 → 3인 講道 → 폐회순이었는데 이 때는 주로 식순이 심경독창과 강도 밖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14) 회보47호, 시창 23년 9월호, “종사주께옵서 거 7월 24일 총부예회에 출석하시사 일반회원의 공부에 대한 신 성과 연구성을 더해주기 위해 좌기와 같은 문제를 하명하셨든바 총부회원만 기간 69인의 답안지가 있었으므로 동월 31일 예회에 종시님께서 출석하시와 그 답안을 일일이 감정하신바 좌와 같이 1. 2. 3등이 있고..”

15) 회보 38호, 8월 8일 예회란에 “금일부터 일동이 국가를 부르다”라고 되어 있다.

16) 회보 53호, 시창 24년 3월 1일, 1월 22일에 예회록에 “일어나서 본회 교강제송”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시창15년 6월 이후부터서는 예회식순이 정식으로 개정되어 이행되었는데 그 때 식순은 심경독창이 빠지고 대신 법어와 유래서 낭독과 법의문답이 식순에 첨가됨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식순이 2년 뒤인 시창 17년 음력 4월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다시 이에 신앙성을 가미한 심고와 예회가가 그 이후 식순에 들어갔다. 그리고 기타 시간에도 감각감상이 종종 들어있고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선서문 낭독도 이때부터 식순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형태의 식순이 2년 동안 지속되다가 2년 뒤인 시창19년 5월부터는 매주 그 성격을 세분화해서 예회식순을 달리 해 예회를 운영하려고 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첫째 일요일은 오전만 보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둘째 일요일은 단원회 날로 잡아 종일을 보고 셋째 일요일은 오전은 예회를 오후는 각 단장이 단원들 성적조사를 하며 넷째 일요일은 오전만 예회를 보고 마쳤으며 다섯째 일요일은 교무부에서 법설, 경의강론, 강연, 감상담들을 해서 각 회원의 공부와 사업의 방향을 일어주고 혹 경전에서 모르는 곳이나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묻게 해서 발표토록 했다. 이때부터 우리교단의 법회의식 중 교가 → 심고 → 법어봉독 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큰 특징은 교화단회가 예회식순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아 강화되고 있는 점과 음력 일요일예회를 실시한 점, 그리고 불미 보고가 있던 점이며 최초 예회 형태와 같이 2~3인의 강사가 나와 강연을 한 점들이다. 이렇게 매주 특성을 달리하는 예회를 다양하게 보아오다가 3년 뒤인 원기 22년 6월부터는 개회 → 출석원 점검 → 회가 → 심고 → 법어봉독 → 회원수지강의, 문답(회보소개) → 강연 → 종사주 법설 → 광고 → 폐회 순으로 대충 통일을 보아 예회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그 해 6월부터는 예회 식순에 국가제창과 경찰신문 소개들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때부터 일제 탄압이 예회식순에까지 미침을 알 수가 있다. 그 해 10월부터 조선 총독부 명령에 의해 각 종교 단체에서도 황국 신민 서사를 강제로 외우게 했다고 나온 점들을 보면 가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¹⁷⁾

원기 24년 이후부터는 개회 바로 다음에 오늘날 일상수행의 요법인 본회교강을 제송하는 순서를 둔다. 이렇게 지정한 식순이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 의해 예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또한, 해방과 더불어서는 민족동잔인 6.25 사변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 교단에서는 원기 37년에 프린트 임시판 예전을 제정하게 된다.

이 예전에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예회 식순이 나오는데 그 식순을 보면 삼귀의와 사홍서원이 들어있어 기존 불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띤다. 그러던 것이 원기 52년에 예전을 새로 편찬하면서 삼귀의와 사홍서원이 생략되고 불교냄새를 탈피한 뒤 입정과 성가 그리고 설교를 예회식순에 넣게 되면서 우리 교단 나름의 식순이 정착되게 되었다.

이렇게 자리잡은 식순이 원기 71년 7월부터 예회식순이 신앙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어 신앙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전헌배와 설명기도, 일원상 서원문독경이 들어가게 되고 경강이 고유의 독자성을 잃고 설교와 같이 취급하게 되었으며 법의문답이 생

17) 친일불교론, 임혜봉 저, 민족사

략된 법회식순이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법회라는 개념이 예회라는 개념을 뒤로 하고 자리 잡게 된 배경과 성격변화 그리고 변천과정, 또 법회식순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 재기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들이 재고해 봐야 할 첫째 문제는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법회라는 개념을 대종사 당시부터 불러왔던 예회라는 개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그리할 때 예회 식순에 신앙성도 강조를 할 수가 있고 불교와 차별성도 가져옴과 동시에 독자성을 지닌 우리말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교당들이 꼭 일요일에만 예회를 볼 것이 아니라, 교당상황과 형편에 따라 3. 6일이나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예회를 보도록 하면 다양한 생활(예를 들면 일요일에 자주 있는 애경사)을 하는 교도들이 생활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쉽게 예회를 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정히 그렇게 안 된다면 「예전」에 낮에 예회를 보는 교당에서는 반드시 야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야회를 꼭 개설해서 교도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족시켜주면 교화에 일익을 더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는 대종사님 당대부터 예회 때 실시해온 경강이나 법의문답 또는 감각감상을 발표하는 시간을 예회 때 더욱 무게 있게 다루고 또한, 식순에 첨가해야겠다는 것이다. 경강을 통해서 교리를 더욱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법의 문답과 감각감상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현행 법회식순은 신앙성을 가미한다고 해서 나온 식순인데, 기도식순과 비교를 해보면 흐름이 맞지 않아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는 기원문을 봉독한 뒤 4배복고하고 독경을 하는데 비해 현 법회식순에서는 먼저 불전헌배를 하고 독경을 하고 설명기도를 올리니, 의식에 통일성이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진정으로 예회에 신앙성을 더 할려면 일상수행의 요법을 일상생활의 요법이라 하여 신앙생활도 반조할 수 있도록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된 내용들을 모두 수렴해서 필자더러 바람직한 예회식순을 한 번 잡아 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겠다.

성가 → 개회 → 입정 → 설명기도 → 불전헌배 → 심고가 → 교가 → 법어합독 → 경강 → 성가 → 설교 → 법의문답과 감상담 → 일상생활의 요법 → 성가 → 폐회